

축산 계열화사업에서 사료사업의 역할과 발전방향



이 창 주
(주)사조바이오피드 대표이사

최근 우리 축산업은 대내외적으로 한·EU FTA,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올해 들어 호주와 캐나다와 FTA가 체결되고 조만간 중국과 뉴질랜드와도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개방의 범위와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향후 수입축산물의 관세감축 및 철폐로 국내 축산물 대비 수입 축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물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확보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최근 현안 속에서 국내 축산물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산비 절감이 최대 선행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생산비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생산을 위한 국제곡물가격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한 빈번한 가뭄 및 냉해로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의 가격 상승의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축산업의 시장 상황의 돌파구는 축산업의 단일 산업분야나 소수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축산업이 전업화와 규모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해 보고 양적인 성장에 치우치지 보다는 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시설 현대화, 사양기술 발전, 사료비용 절감 및 효율화, 질병의 관리 기술 개발 등 축산업 전반의 연관산업의 발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산업들은 표면적으로는 통합적 개념에서 축산업에 접목되는 것이 기본 이지만 현실은 각기 특성에 따라 일부 독자적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은 추가적인 비용투자 및

상호 연관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 통합적 개념에서의 축산계열화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부터 육계산업과 양돈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근 특히 육계산업의 경우 전체 물량의 90%이상이 계열화 업체에 의해 생산될 만큼 그 비중이 커졌으며 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사조그룹도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2011년 초 본격적인 축산 계열화사업 진출을 위해 지금의 전남 함평에서 사료공장을 첫 가동한지도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고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제가 계열화사업 전반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계열화사업 속에서의 사료사업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여 사료를 생산·공급하는 사료산업은 축산업 전반의 연관 산업 중 최대 기반산업으로 하는 동시에 각종 축산물의 가격경쟁력과 양축농가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열화사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육계와 양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각 63.0%와 54.0%로 전체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은 편이어서 특히 계열화사업의 손익구조에서

전체 생산비 중 상대적인 사료비의 비중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입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확보는 계열화 업체의 경쟁력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용 측면에서는 장치산업인 사료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생산과정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기업 상호간의 지역적 특성 및 주력 제품군을 고려한 상호 유기적인 위탁 생산과 주력 생산품의 생산 집중화로 인한 생산제품수의 감축 등을 통해 자체 공장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 특성화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과잉 중복 투자를 줄여가는 방안이 상호협업을 통해 모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국내 사료의 복잡한 유통경로로 인한 고비용 구조 하에서 판매, 대금회수, 농가서비스 등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유통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각 회사별로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물류기지 와 하부 대리점 등에 대한 공동 이용 방안을 통해 추가 물류비용 절감으로 통한 직거래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열화사업의 사료산업 형태는 육계나 양돈 같은 단일 축종을 중심으로 하고 이에 대한 사료생산설비의 축종을 중심으로 한 전문화가 가능하고 계열 주체와 농가의 직접 계약방식 거래 형태로 인해 생산비 절감과 유통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 거의 대부분의 계열화사업 주체에서는 대부분 자체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사료를 통한 가축 생산비 대비 효율성 증대를 최대 현안으로 인식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더 나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방안 도입을 통해 유통 및 기타 부대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하여 실현하고 있어 이러한 계열화 추세의 지속적 확대는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사료산업의 생산비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사료산업은 생산비용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중장기적 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료산업은 과거 단순 배합에만 머물던 가공기술이 최근 첨단가공기술을 겸비한 고도의 바이오산업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

며 이러한 기술 수준이 곧 기업의 중요한 미래가치로 다가오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열화사업의 사료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축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를 얼마나 줄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해 실현하는가는 사업의 중요한 성패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생각되므로 단일 계열화 사업에서의 사료산업의 차원을 넘어 우리 업계 전체가 그동안 시설 확장 등을 통해 양적인 측면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무한 경쟁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 R&D센터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 R&D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등을 통한 보다 높은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지속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